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자 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4.6.3.(월) 조간	배포	2024.5.31.(금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	책임자	국 장	서재완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임잔디	(02-3145-7587)

##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「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」 개최

### I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4.5.31.(금) 증권사,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금융투자소득세(이하 '금투세')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,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·간접적 영향에 대하여
-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,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

### 금투세 관련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4.5.31.(금) 10:00~11:2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
- ☑ 참석자 : 금융감독원장,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 
증권사·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
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

## Ⅱ 업계 및 학계 주요 의견

※ 시장전문가들과 학계는 금투세의 장·단점과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·간접적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

- **(금투세의 도입취지 관련)** 금투세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,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
  -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,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
  - 다만,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었음
- **(과세대상 규모 관련)**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
  -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
  -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동의하였음

- **(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관련)** 시장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
-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,
    -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
    - 이는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
  - 또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
    -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
    -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
- **(납세 실무 관련 어려움 및 공정경쟁 저해 등)**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
-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

- 또한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

### Ⅲ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
  -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
  - 금투세가 금융상품 관련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되어, 한차례 유예를 거치는 등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
    -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
    -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
- 또한, 이복현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
  -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,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